마음챙김과 자기연민

청소년이 건강한 기능작용으로 가는 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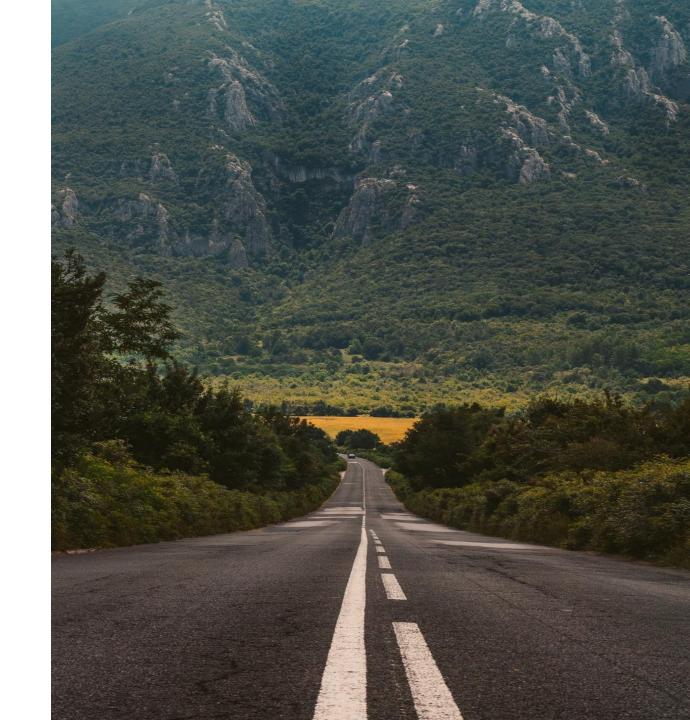
Karen Bluth, PhD

April 11, 2021



우리가 가는 길

- 청소년기의 문제
- 마음챙김
 - 정의
 - 연구
- 자기연민
 - 정의
 - 연구





최근...

2012 →2015, 우울증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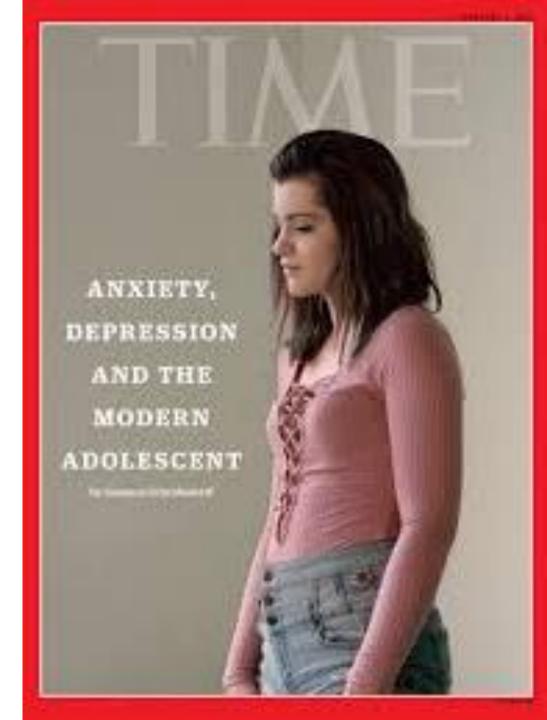
- 50% 증가, 소녀
- 21% 증가, 소년

12-14세의 경우, 2007년에 비해 2014년에:

- 소녀의 경우 3배가
- 소년의 경우 2배가

자살을 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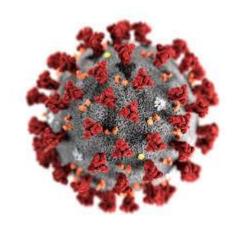
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역병사태 이전이었다.



(Twenge, 2017)

코로나 관련 심리적 고통

- 중국, n=1036
 - 6-15세
 - 2020년 4월
 - 12% 우울증, 19% 불안, 6% 둘 다 가짐
- 인도, n=121 격리 청소년 & n=131 비격리 청소년
- 9-18세
 - 66% 무기력 경험, 69% 걱정, 62% 공포 (모든 청소년)
 - 공포, 초조, 짜증, 불안 관련 불면증, 고립감, 슬픔이 격리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큼
 - 미국 2020년 4~10월 정신병원 응급실 방문 증가
 - 31% 증가 12-17세
 - 24% 증가 5-11세



(Chen, Zheng, Liu, Gong, Guan, & Lou, 2020; Leeb, Bitsko, Radhakrishnan, Martinez, Njai, & Holland; Saurabh, Ranjan 2020)

현재 연구 상황

마음챙김(Mindfulnes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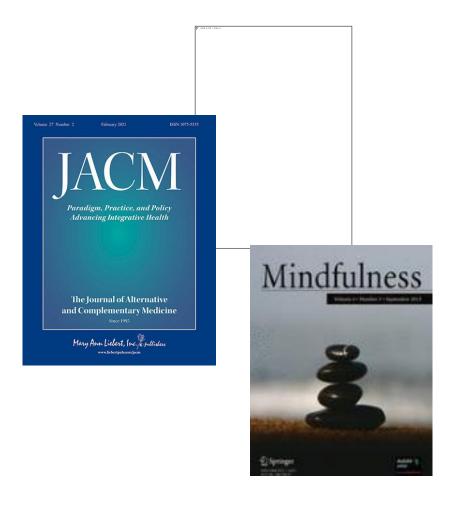


마음챙김 정의



지금 이 순간에 의도적으로 비판 없이 주의를 가져가는 것에서 일어나는 알아차림 (Kabat-Zinn, 1994)

메타분석과 평가들:



- Zenner, Herrnleben-Kurz, & Walach, 2014
- Zoogman, Goldberg, Hoyt, & Miller, 2015
- Kallapiran, Koo, Kirubakaran & Hancock, 2015
- Felver, Celis-de Hoyos, Tezanos, & Singh, 2016
- Kohut, Stinson, Davies-Chalmers, Ruskin & Van Wyk, 2017
- Klingbeil, Renshaw, Willenbrink, Copek, Chan, Haddock, Yassine & Clifton, 2017
- Carsley, Khoury, & Heath, 2018
- McKeering & Hwang, 2019

연구 개요

- 참가자
 - 4-21세
 - 공립/사립학교; 대부분수업중
 - 미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, 홍콩
- 결과
 - 웰빙(불안, 우울, 스트레스, 낙관주의, 대처, 자기조절, 자기연민)
 - 인지 기능
 - 인체 계측 (코르티솔, 심박수, 수면 패턴)
- 진행자
 - 혼합; 담당교사, 외부 진행자

개입

강도

- 내용 MBSR 요소들, 예, 호흡 알아차림, 자애
- 기간 4~24주; 8주 중간값; 160-3700분
- 가정 수행 다양

형태

- MBSR (Kabat-Zinn, 1990)
- MBCT (Segal, 2002)
- MBSR 요소들
- 호흡 알아차림 명상 개입 (Barnes et al., 2008)
- 마음챙김 학교들 (Liehr & Diaz, 2010)
- 호흡 배우기 (Broderick, 2013)
- 발의 바닥들 (Singh et al., 2003)
- 학교 내 마음챙김 (Volanen, 2020)

결과



- 긍정적 효과:
 - 우울증
 - 스트레스
 - 문제 외현화
 - 낙관주의
 - 긍정적 효과
 - 친사회적 기능
 - 스트레스 회복탄력성
 - 파괴적 행동

결과,계속

- 자살 사고
- 실행 기능
 - 작업기억
- 불안
- 인지 수행
- 치료 후보다 사후지도(followup)에서 효과크기가 더 큼 (Klingbeil et al 2017)



진행자들:

언제 누구에게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나?

- 프로그램 진행자
 - 훈련 받은 담당교사가 전반적으로 최선 -데이터 혼조
- 학생의 발달 시기
 - 15-18세가 그 이하보다 효과적
- 개입투여량
 - 프로그램 시간이 많을수록 효과가 좋음
- 임상 샘플
- 심리적 결과(즉 우울증, 불안)

교사들의 말:

효과 있는 것들:

- 마음챙김을 체현하는 교사
- 학교 행정과 부모의 지원
- 동료 교사와의 협력
- 편안한 물리적 환경

장애:

- 시간 제약, 과밀 교육과정
- 학생이 항상 참여하진 않음

- ▶학생들이 더 이완되고 안정됨
- ▶파괴적 행동 감소
- ▶ 과제수행행동 증가

연구의 강점



- 대형 연구; 평균 n >100
- 연령대, 성별, 성적 분포가 균형 잡힘
- 거의 절반은 비 백인 참가자가 주를 이름
- 대부분 수업 시간에 전형적 교실에서 행함
- 거의 1/3이 교외 수행 포함
- 다수가 MBSR 요소들 사용

한계와 차후 연구 방향

- 무작위 할당연구
 - 능동 제어 구조와 포맷 제어
- 교실 및 학교 효과를 통계적으로 설명
- 장애 학생 포함
- 사회경제적 상황(SES) 포함
 - 가족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학구나 지역사회 자료 사용
- 기존 프로그램 연구 복제
- 성별차이보고

차후 연구 방향 계속

- 개입자 교육 평가
 -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가?
- 메타분석 시행
 - 진행자 포함: 즉 담당교사 vs. 외부 진행자
- 더 다양한 결과 측정치
 - 다수 정보원, 즉 교사, 부모, 학교 직원
- 구성요소 연구시행
 - 유효 프로그램 구성요소 결정
- 특히 임상 표본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입원환자 프로그램



차후 연구 방향 계속

- 학교와 학구에서 얻은 '실제 결과' 포함
 - 학생 성취도
 - 행동데이터
 - 출석 데이터
- 추적연구 데이터 수집
- 효과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수행이 필요한 지 결정
- 개입실시 충실도 평가
 - 진행자는 개입을 본래 의도된 방식대로 실시했나?
- 기전 조사
 -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하는가?

최신 연구 ... 검토 n= 73 연구 (Phan et al.)

결과	모든 연구의 %	향상을 보인 %	향상 분야
웰빙 Well-being	15	44	
자기연민 Self-Compassion	7	100	
사회적 기능 Social functioning	15	85	사회적 유능성, 편견, 공감
정신 건강 Mental Health	29	64/80	우울/불안
자기조절과 정서성	41	100	실행기능, 회복탄력성, 자기조절
마음챙김의 알아차림	15	73	마음챙김, 생각-감정-신체감각 알아차림
주의의 초점	26	83	주의, 집중, 주의산만
심리적, 생리적 스트레스 Psychological & physiological stress	19	75	스트레스, 코르티솔, 우측 편도 활성, 기능적 연결성과 뇌 가소성
문제행동 Problem behaviors	11	100	공격성, 파괴적 행동, 외현화 행동
학교 성적 Academic performance	22	94	성적표 점수, 청각/언어 기억, 평점(GPA), 수학 성과, 수학 점수, 사회학 점수

요약하면...

고품질 연구들이 향상을 보인 항목:

- 회복탄력성
- 범불안장애
- 공황
- 걱정

차상위 품질연구가 향상을 보인 항목:

- 자아개념
- 자기조절, 감정 조절
- 대처하기
- 실행기능
- 인지적 제어
- 기분
- 사회적 편견
- 주의 문제

현재 연구 상황

자기연민 Self-Compassion



자기연민 정의

힘겹게 고투할 때 자기에게 친절하기 -보살피고, 보호하고, 관심을 가지고, 용기를 주며 친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기 (Neff, 2003; Germer & Neff, 2019)

메타분석과 평가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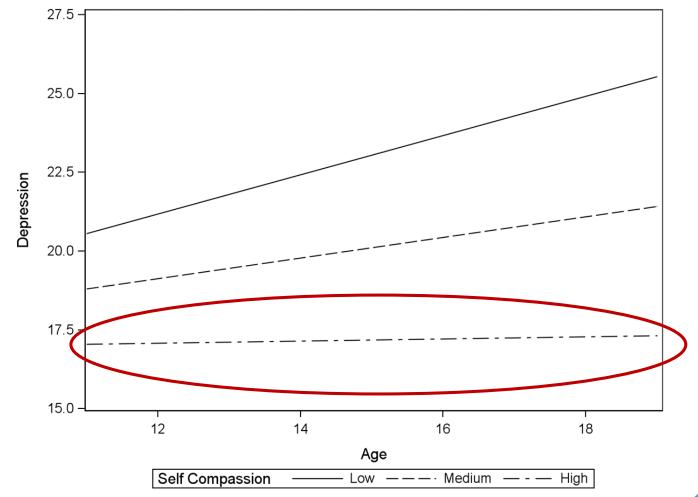
- Marsh, Chan & Macbeth, 2018
 - 자기연민과 심리적 고통 (즉 우울증, 불안, 스트레스)의 효과 크기 평가
 - 19 연구
 - 개입 (n=2), 종단연구 (n=4) & 상관관계 (n=13)
- Pullmer, Chung, Samson, Balanji & Zaitsoff, 2019
 - 청소년 우울증과 자기연민의 관계 평가
 - 18 연구
 - 개입 (n=5), 전향적 상관관계적 종단연구 (n=2) & 상관관계 (n=11)

결과

- 자기연민과 우울증 증상 간 강한 부적 관계성
- 자기연민과 정신병리 간 상관관계가 컸음
- 성별결과 혼조; 상관관계는 성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, 나이가 많은 소녀들은 같은 나이 소년이나 더 어린 소녀에 비해 낮은 자기연민
 - 나이에 영향 받음 나이든 십대는 자기연민/정신병리 관계가 약했음
- 하위요인 분리 시 자기친절과 마음챙김은 우울증 증상과 부적 관계성;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음
- 웰빙(예, 우울증, 불안, 사회적 연결성)의 합산점수가 자기연민과 상관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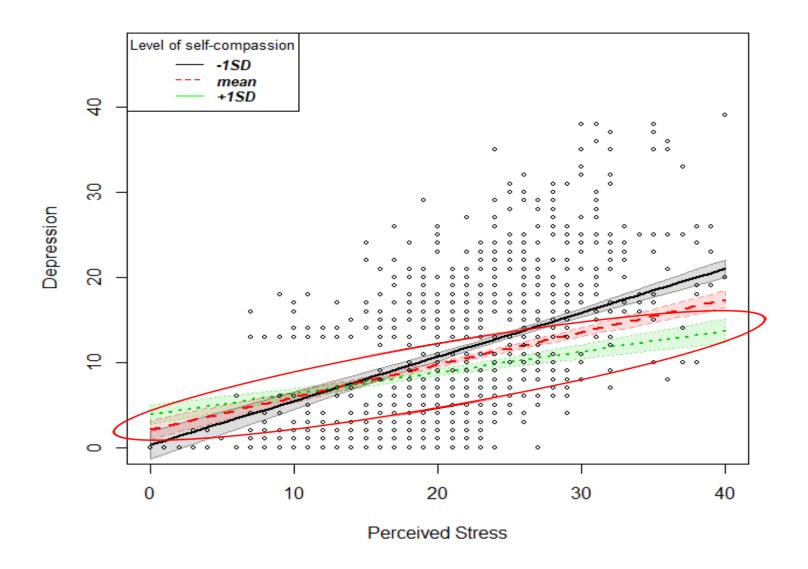
연령과 우울증의 관계 (미국)

자기연민이 커짐에 따라 십대는 나이가 들며 우울증 감소



(Bluth et al., 2016)

스트레스와 우울증 관계 (미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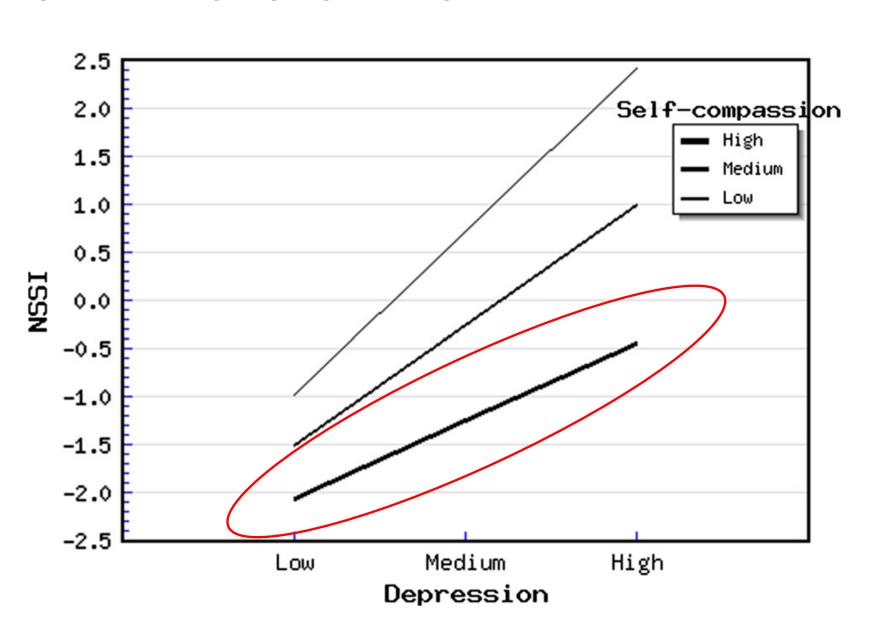
자기연민이 커짐에 따라 십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우울증에 걸리는 일이 적어진다

(Lathren, Bluth & Park, 201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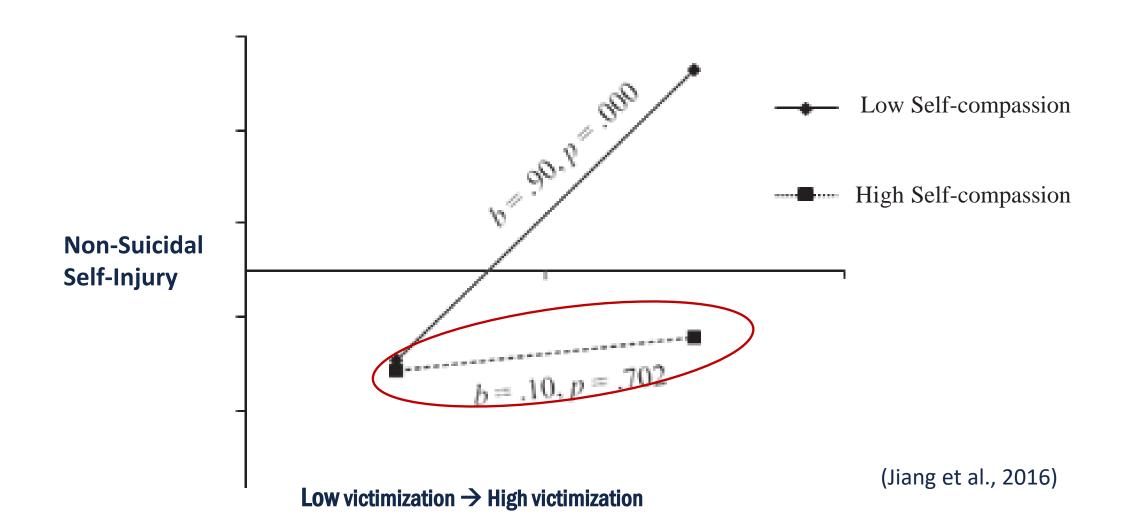
우울증과 비자살성 자해의 관계 (포르투갈)

자기연민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증이 비자살성 자해로 이어지는 일이 줄어든다

(Xavier et al., 2016)



피해와 비자설성 자해의 관계 (중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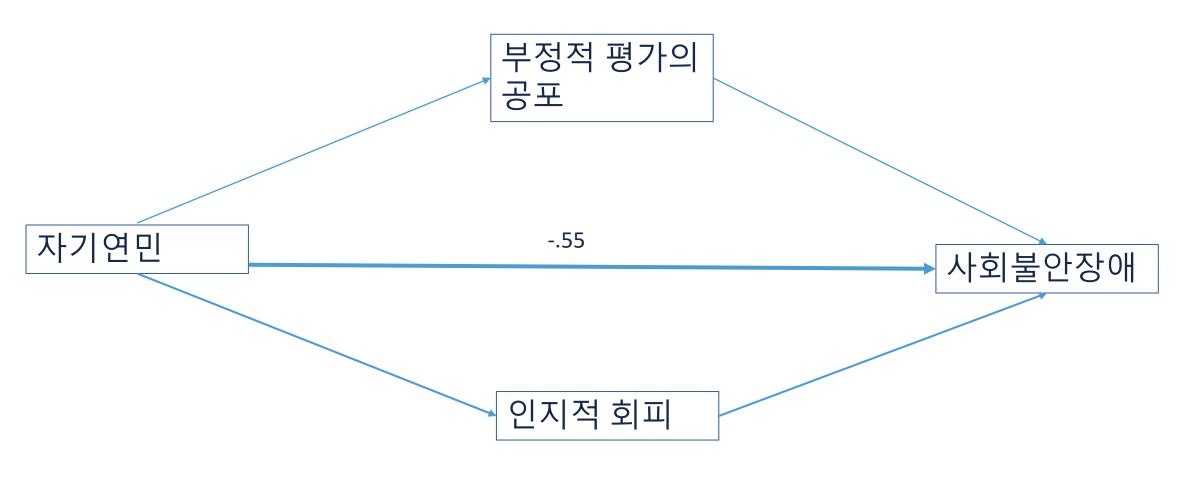
자존감과 정신건강의 관계 (호주)

- 낮은 자존감을 가진 9학년생들:
 - 자기연민이 높으면, 1년 후 정신건강에 변화 없음
 - 자기연민이 낮으면, 1년 후 정신건강이 악화



(Marshall et al., 2015)

자기연민과 사회불안장애의 관계 (스코틀랜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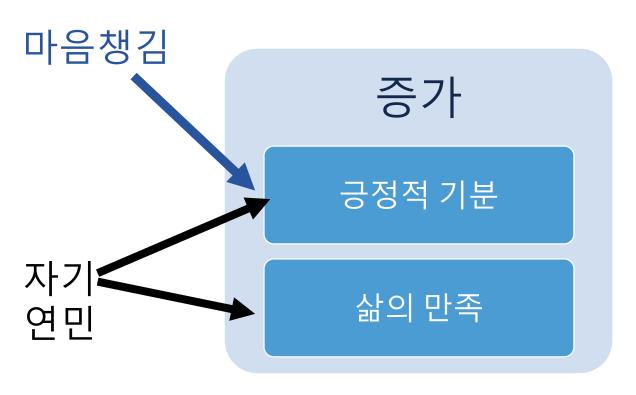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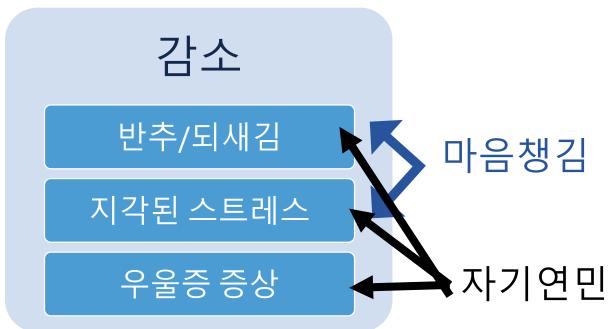
(Gill, Watson, Williams & Chan, 2018)

자기연민의 완충효과에 대한 다른 증거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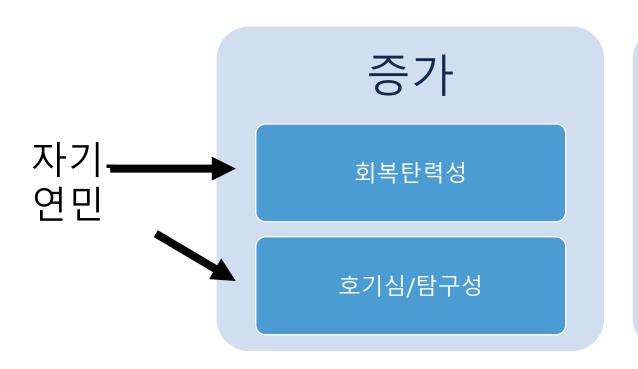
- 만성 학업 스트레스 > 웰빙 악화, 부정적 정동
 - 208 학부 학생(중국)
 - 자기연민이 큰 사람은 부정적 기분 감소 (Zhang et al., 2016)
- 피해 → 정신건강
 - 어린 시절 피해를 당한 15-18세는 학업 성적이 낮음 (스페인)
 - 자기연민이 큰 사람은 정신건강이 더 좋음 (Jativa & Cerezo, 2014)
- 트라우마 사건 → PTSD, 우울증, 불안, 자살 사고
 - 15-19세 난민 (이스라엘)
 - 자기연민이 큰 사람은 심리증상이 낮음(Zeller et al., 20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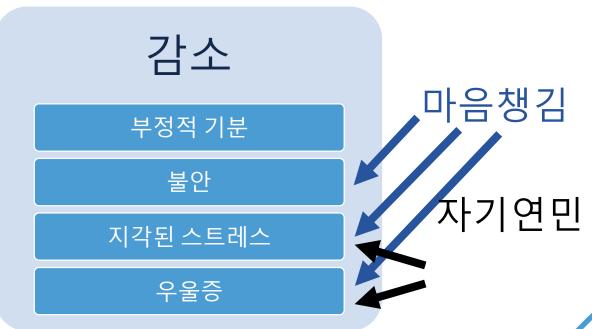
내면으로 향하는 명상체험(iBme): 5일 마음챙김 명상수련회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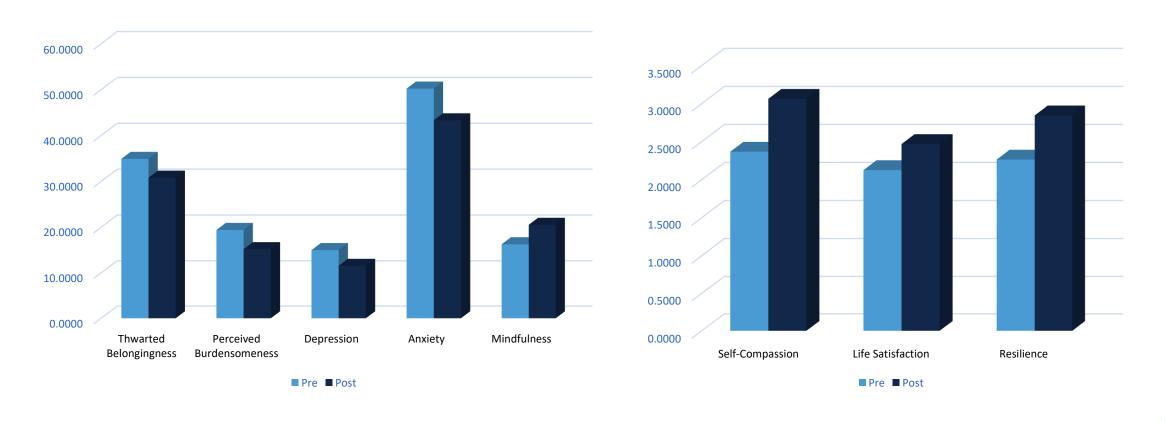
자신과 친구 되기: 십대를 위한 마음챙김 자기연민 프로그램





(Bluth et al., 2016; Bluth & Eisenlohr-Moul, 2017)

트랜스젠더십대를 위한 자신과 친구 되기 개입전과 후의 변화 (n=29)



(Bluth, Lathren, Clepper-Faith, Pflum, Larson & Ogunbamowo, in preparation)

요약

- 자기연민은 정신병리(즉 우울증, 불안, 스트레스)와 반비례
- 자기연민은 청소년기 문제의 부정적 결과에서 청소년 보호
- 고위험군 십대에 특히 효과적
- 12~16세 소녀들은 낮은 자기연민과 높은 우울증 위험 증가
- 자기연민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됨

한계와 차후 방향

- 사회경제적 지위(SES) 평가 필요
- 인종적 소수집단 연구 필요
- LGBTQ 인구 연구 필요 (레즈비언, 게이, 양성애자, 트랜스젠더, 퀴어)
- 개입 연구 다양한 프로그램 기간과 개별적 요소
- 우울증 증상에 대한 자기연민의 개체-내 분석
 - 성별, 성적 취향, 인종, 젠더 정체성, SES에 따라 진행

차후 방향, 계속

- 제어된 개입 연구가 더 필요
- 사용되는 척도의 일관성 (예, 자기연민 척도, 우울증 척도)
- 용어와 구성의 일관성
 - "어린(younger)" 청소년과 "나이든(older)" 청소년의 정의
 - 개입 연구의 복제
- 자기연민이 성장 발달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조사
 - 자기연민의 전조증상은 무엇인가?
- 임상 샘플에 관해 부연 (예, 우울한 청소년)



마지막 생각 ...

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정신건강 궤도를 결정하는 개입을 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다.

어떻게 나아갈 것인가?



FRANK PORTER
GRAHAM CHILD
DEVELOPMENT
INSTITUTE